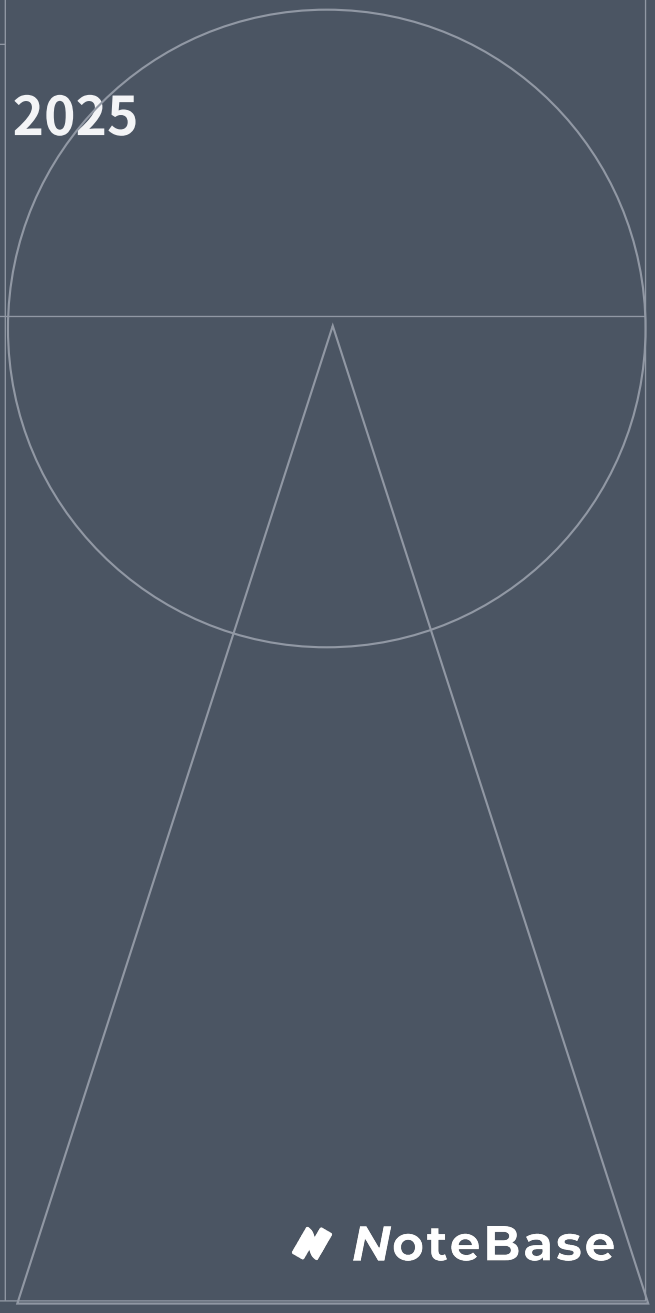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5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5

문 1.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선생님의 '수다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기고문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수다가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작가: 수다는 목적의식 없이 이뤄지는 대화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과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마음속 장벽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로 긴장한 뇌를 이완시킬 수 있으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을: 수다를 통해 뇌를 이완시킨다니 흥미롭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가: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우리의 뇌를 잠식해,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다를 떨고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을 나누면, 긴장했던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을: 그렇군요. 하지만 목적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항상 뇌에 휴식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가: 수다를 나누려면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겠죠. 보통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과의 수다는 은밀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쌓아 줍니다.
병: 맞아요. 저도 엄마나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흠을 남에게 감추려고만 한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솔직해져야 남도 나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겠죠?

① 갑은 상대방과 연관된 정보를 언급하며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② 을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③ 병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④ 작가는 구체적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화 참여자들이 어떤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발화의 기능과 연결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화제 이끌어 내기는 상대와 관련된 정보나 공통 관심사를 꺼내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 가는 방식이다. 추가 정보 요청은 질문으로 상대의 설명을 더 구체화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감과 경험 제시는 상대 말에 호응한 뒤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친밀감이나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시각 자료 제시는 그림, 표, 사진처럼 눈으로 보는 자료를 활용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갑은 작가의 기고문을 언급한 뒤 수다가 건강에 좋다는 말의 뜻을 묻고 있다.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꺼내 화제를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2번 O: 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작가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질문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방식이 맞다.
3번 O: 병은 '맞아요'라고 작가의 말에 공감한 뒤 자신도 엄마나 친구를 만나면 수다를 떨게 된다는 경험을 덧붙이고 있다. 공감에 자신의 경험 제시가 결합된 말하기 방식이므로 적절하다.
4번 X: 작가는 스트레스 상태나 수다 상대의 예를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 그림, 표, 사진 같은 시각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시각 자료'이고, 올바르게는 구체적 설명과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작가가 가족과 친구의 예를 든 부분은 구체적 사례 제시로는 볼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시각 자료 제시로 바꾸면 틀린다. 사례 제시와 시각 자료 제시는 서로 다른 말하기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하기 방식 문제는 발화의 형식부터 확인하면 된다. 질문이 있는지, 공감 표현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 붙는지, 그림·표·사진 같은 시각 자료가 실제로 제시되는지를 구분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질문은 추가 정보 요청, '맞아요' 뒤 자기 경험은 공감과 경험 제시, 그림·표·사진이 있어야 시각 자료 제시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매화가 꽃망울[꼰망울]을 터뜨렸다.

② 옥수수를 밭이랑[바치랑]에 심었다.

③ 제품의 생산량[생산냥]이 증가했다.

④ 작년 겨울에 강릉[강능]에 다녀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와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비음화, ㄴ 첨가, ㄹ의 [ㄴ] 발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꽃망울은 받침 뒤에 비음이 이어져 비음화가 일어난 말이다.
밭이랑은 합성어이므로 뒤말 '이랑' 앞에 ㄴ 첨가가 일어나 [반니랑]으로 발음한다.
생산량과 강릉은 ㄹ이 특정 환경에서 [ㄴ]으로 바뀌는 대표적 발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꽃망울'은 '꽃'의 끝소리가 뒤의 'ㅁ' 앞에서 비음화되어 [꼰망울]로 발음한다.
② X: 제시된 [바치랑]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밭이랑'은 합성어이므로 '이랑' 앞에 ㄴ이 첨가되고 앞말 받침이 비음화되어 [반니랑]으로 발음한다. 틀린 표현은 [바치랑]이고, 올바르게는 [반니랑]이다.
③ O: '생산량'은 받침 ㄴ 뒤의 '량'이 [냥]으로 발음되어 [생산냥]이 된다.
④ O: '강릉'은 받침 ㅇ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강능]으로 발음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받침 ㅌ과 모음 ㅣ가 만나면 곧바로 구개음화된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밭이랑'은 조사 결합이 아니라 합성어이므로 먼저 ㄴ 첨가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 뒤에 오는 요소가 조사나 어미인지, 합성어의 뒤말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합성어에서 뒤말이 '이'로 시작하면 구개음화만 보지 말고 ㄴ 첨가와 비음화를 먼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밭이랑은 구개음화보다 ㄴ 첨가가 먼저 드러나 [반니랑]으로 굳는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첫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 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 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겨울 빈 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 댈 줄이야 짐작도 못 했던 강 노인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 노인은 주먹코를 씰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 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 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 양귀자, 「마지막 땅」에서 —

①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배려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②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③ 땅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인공의 생각이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에 드러난 서술 시점과 표현 방식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 아니라 내면 생각과 감정까지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다. 인물 간 대화는 발화가 직접 오가야 성립하며, 회상 장면은 현재 서술 속에 과거 사건이 별도로 삽입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강 노인은 밭과 모종이 훼손된 현실에 분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넘겨 주는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 '소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배려'가 아니라 '밭을 해친 행위에 대한 분노와 생명 존중 의식'이 드러난다.
2번 O: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라는 부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또한 서술자가 강 노인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드러내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드러난다.
3번 X: 땅의 가치를 지키려는 강 노인의 생각은 보이지만, 그것이 인물 간 대화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인물 간 대화를 통해'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강 노인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4번 X: 이 장면은 불특정 다수의 적대적 행위에 격분하는 현재 상황이지,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는 회상 장면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남의 행패에 분노하는 현재 장면'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번과 3번은 모두 강 노인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므로, 학생들이 시점과 제시 방식을 혼동하기 쉽다. 생각이 드러난다고 해서 곧바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술자가 내면을 직접 전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누가 말하고 있는지, 인물의 내면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 제시되는지, 실제 대화문이 있는지, 과거 장면이 따로 삽입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3인칭에서 내면을 직접 제시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대화문이 없으면 대화 제시가 아니며, 과거 삽입이 없으면 회상 장면이 아니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도 공공언어인 것이다. 공문서란 기안문, 보도 자료, 공고문 등으로,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전자 문서, 안내판 등)로 규정하고 있다. 공문서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소통성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언어를 바르게 쓰면 의사소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올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①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될 것이다.

②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 안내판 등에 쓰인 언어도 공공언어로 볼 수 있다.

③ 공공언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확성보다는 소통성이 더 중요하다.

④ 사람들이 공공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언어의 범위와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지문에서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좁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다. 공문서 언어는 그 공공언어의 한 범주이다. 지문은 공문서의 공공언어가 정확성과 소통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둘 가운데 하나만 우선한다고 보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은 공공언어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좁은 의미와 공문서 언어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보다 더 넓은 범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O. 지문은 공문서를 기안문, 보도 자료, 공고문 등으로 들고, 법 조문 설명에서 안내판도 공문서의 예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이나 안내판의 언어도 공공언어로 볼 수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정확성보다는 소통성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지문은 공공언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확성과 소통성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올바르게는 '공공언어는 정확성과 소통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다.

④ O. 지문은 공공언어를 바르게 쓰면 의사소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공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정확성과 소통성'을 병렬로 제시한 지문을 '정확성보다 소통성이 우선한다'는 서열 비교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병렬 제시를 우열 비교로 바꾸면 지문에 없는 내용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문제에서는 지문에 함께 요구된 기준이 나오면 먼저 병렬 조건인지 우선순위 비교인지부터 구분한다.
지문이 두 기준을 모두 중요하다고 제시하면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앞세운 선지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언어이고, 기준은 정확성과 소통성의 병행이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① 그는 뒷통수가 납작하다.

② 그는 매번 뒷북만 치고 다닌다.

③ 행사가 끝나면 뒷풀이를 할 예정이다.

④ 일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뒷끝이 좋아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뒤-'가 들어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쓰이지만, 뒤에 오는 말이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시작하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뒤통수', '뒤풀이', '뒤끝'은 '뒤-'로 적고, '뒷북'은 표준어로 굳어 있는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뒷통수'이다. 올바르게는 '뒤통수'이다. '통수'가 거센소리 ㅌ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2번: O. '뒷북'은 표준어이다. '뒷북을 치다'라는 관용적 표현에서도 이 표기를 그대로 쓴다.
3번: X. 틀린 표현은 '뒷풀이'이다. 올바르게는 '뒤풀이'이다. '풀이'가 거센소리 ㅍ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4번: X. 틀린 표현은 '뒷끝'이다. 올바르게는 '뒤끝'이다. '끝'이 된소리 ㄲ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발음상 [뒫-]처럼 들린다고 해서 모두 '뒷-'으로 적으면 틀린다. 이 문항은 '뒤통수', '뒤풀이', '뒤끝'처럼 실제 표기는 '뒤-'인 말을 골고루 섞어 두어 사이시옷을 기계적으로 붙이는 습관을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를 본다.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시작하면 '뒤통수', '뒤풀이', '뒤끝'처럼 '뒤-' 표기를 우선 떠올리고, 관용적으로 굳은 '뒷북' 같은 표준형을 따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뒤통수·뒤풀이·뒤끝'은 '뒤-'이고, '뒷북'은 '뒷-'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臺에 黃燭불이 말 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도우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煩惱는 별빛이라

휘여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合掌인 양 하고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三更인데
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① 4음보의 율격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전통적인 제재를 감각적인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주변 풍경의 묘사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④ 대상의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어 현실에서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지훈의 「승무」에서 시적 대상의 형상화 방식과 작품의 정서를 바르게 감상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는 전통 춤인 승무를 소재로 삼아 4음보의 가락, 반복, 색채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무희의 자태와 그 속에 깃든 고독하고 고매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색채 이미지는 대상의 모습과 분위기를 드러내는 기능이 크며 현실의 고난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각 행이 대체로 4음보의 호흡으로 이어지고, 처음과 끝의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가 반복되어 운율감 있게 시상이 전개된다.
② O: 승무라는 전통적 제재를 '하이얀 고깔', '파르라니', '황촉불', '복사꽃' 같은 감각적인 시어로 구체화하고 있다.
③ O: '빈 대에 황촉불이 말 없이 녹는 밤',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와 같은 주변 풍경 묘사는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승무의 정서를 돋운다.
④ X: 틀린 부분은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 현실에서의 고난을 강조'라는 표현이다. 이 시의 색채 이미지는 승무의 자태와 내면 정서를 섬세하게 부각하는 장치이다. 올바르게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 아름다움과 고독한 정서를 형상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세사에 시달려도'라는 구절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직접 강조한 작품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구절도 곧바로 '번뇌는 별빛이라'로 이어지므로, 시의 중심은 고난의 현실 제시가 아니라 번뇌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정서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색채어나 풍경 묘사가 보이면 그것이 현실 비판이나 고난 강조인지, 대상의 외양과 분위기 형상화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이 시에서는 색채와 배경 묘사가 승무의 모습과 정서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한다.

암기 포인트

「승무」는 4음보 가락과 반복, 색채 이미지로 전통적 미와 고독한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NoteBase

문 7. (가)~(다)에 들어갈 표준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밥을 (가) 빵을 (가) 알아서 해.
◯ 그 둘은 (나) 뗄 수 없는 관계이다.
◯ 곧 회의를 (다) 합니다.

① (가): 먹든지, (나): 떼려야, (다): 시작하려고
② (가): 먹든지, (나): 뗄래야, (다): 시작하려고
③ (가): 먹던지, (나): 떼려야, (다): 시작할려고
④ (가): 먹던지, (나): 뗄래야, (다): 시작할려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뜻이 비슷해 보이는 어미와 관용 표현 가운데 표준어 형태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든지'는 둘 이상 가운데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밥과 빵 중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상황이므로 '먹든지'가 맞다.
- '-던지'는 지난 일을 회상하거나 막연한 추측과 관련될 때 쓰이는 형태이므로 선택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아주 밀접해서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의 굳어진 관용 표현이다.
- 어떤 일을 할 의도를 나타낼 때는 '하다'가 줄어 '하려고'가 되므로 '시작하려고'가 표준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 먹든지'는 선택의 뜻을 나타내므로 맞다. '(나) 떼려야'는 관용 표현 '떼려야 뗄 수 없다'의 올바른 형태이므로 맞다. '(다) 시작하려고'도 의도를 나타내는 표준 표현이므로 전체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나) 뗄래야'이다. 올바르게는 '떼려야'이다. '(가) 먹든지', '(다) 시작하려고'는 표준어이지만 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 먹던지'와 '(다) 시작할려고'이다. 선택을 나타낼 때는 '먹든지'가 맞고, 의도를 나타낼 때는 '시작하려고'가 맞다. '(나) 떼려야'는 맞다.
④ X: '(가) 먹던지', '(나) 뗄래야', '(다) 시작할려고'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먹든지', '떼려야', '시작하려고'이다.

오답 포인트

'-든지'와 '-던지'는 발음이 비슷해 자주 바뀌고, '떼려야 뗄 수 없다' 같은 관용 표현은 귀에 익은 소리대로 적기 쉽다. 또한 '하려고'를 '할려고'로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 ③, ④에서 함께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택이면 '-든지', 회상이면 '-던지'로 먼저 가른다. 그다음 관용 표현은 통째로 기억하고, '하다+려고'는 항상 '하려고'로 적는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선택은 '-든지', 관용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의도 표현은 '하려고'이다.

NoteBase

문 8. ㉠~㉣을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후가 하루하루 ㉠ 완연히 달라지고 있다.
◯ 아이가 운동을 잘한다는 말은 ㉡ 허언이 아니었다.
◯ 오늘 공연에는 천 명에 ㉢ 육박하는 인파가 모였다.
◯ 오랜 조사 끝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 단초를 찾았다.

① ㉠: 천천히
② ㉡: 빈말
③ ㉢: 가까운
④ ㉣: 실마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유의어 치환이 가능한지와, 비슷해 보이는 말이라도 의미축이 다르면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완연히는 모습이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남을 뜻하고, 천천히는 속도가 느림을 뜻한다. 허언은 사실이 아닌 말이고 빈말은 실속 없이 하거나 듣기 좋게만 하는 말이다. 육박하다와 가까운은 수치에 바싹 다가감을 나타내고, 단초와 실마리는 일의 해결 단서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완연히'는 변화가 뚜렷하다는 뜻인데 '천천히'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다. 두 말은 의미의 기준이 달라 서로 바꿀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천천히'이고, 올바르게는 '뚜렷하게' 또는 '확연하게'에 가깝다.
2번: O. '허언이 아니었다'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뜻이고, 이 문맥에서는 듣기 좋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는 의미의 '빈말이 아니었다'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3번: O. '육박하다'는 어떤 수치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다는 뜻이다. '천 명에 가까운 인파'는 같은 뜻을 유지하므로 적절하다.
4번: O. '단초'는 실마리나 단서를 뜻한다. 사건 해결의 단서라는 문맥에서 '실마리'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과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을 비슷한 부사처럼 보이게 섞어 놓은 함정이다. '하루하루'가 들어가 있어 속도 표현처럼 느끼기 쉽지만, 원래 문장의 핵심은 변화가 뚜렷하다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치환 문제는 사전적 뜻이 비슷해 보이는지만 보지 않고, 문장에서 그 말이 드러내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본다. 정도를 말하는지, 속도를 말하는지, 사실 여부를 말하는지, 해결 단서를 말하는지를 맞춰 보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완연히는 뚜렷함, 천천히는 느린 속도이다. 육박은 가까움이고 단초는 실마리이다.

NoteBase

문 9. (가)를 (나)로 고쳐 쓸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한 현시대에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 팀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 팀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ㄱ.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한다.
ㄴ. 문장의 연결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
ㄷ. 목적과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글의 전개 방식을 수정한다.
ㄹ.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가)를 (나)로 고치면서 중복 표현을 줄였는지, 중의적인 표현을 더 분명하게 바꾸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복 표현 수정은 같은 뜻이 되풀이되어 문장이 늘어지는 부분을 덜어 내는 것이다. 중의성 해소는 두 가지 이상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뜻이 분명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반면 담화 표지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 표현이고, 글의 전개 방식 수정은 내용 배열 자체를 바꾸어 목적이나 의도가 더 선명해지게 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다. (가)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와 뒤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한 현시대에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거버넌스"는 새 업무 체계를 논의한다는 뜻이 겹치므로, (나)처럼 중복되는 설명을 덜어 내는 것이 적절하다.
- ㄷ은 틀리다. (가)에서 (나)로의 수정은 내용 배열을 새로 짜서 목적과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한 문장을 삭제해 군더더기를 줄인 것이다. 틀린 표현은 "글의 전개 방식을 수정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중복된 내용을 덜어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한다"이다.

② O
- ㄱ은 맞다. 중복되는 내용을 줄여 같은 뜻의 반복을 피했다.
- ㄹ도 맞다. (가)의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고"는 "단순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도,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만"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나)는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만"으로 고쳐 뜻을 분명하게 했다.

③ X
- ㄴ은 틀리다. (나)에서는 "따라서", "또한" 같은 담화 표지를 새로 넣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적절한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이고, 올바르게는 "문장 사이의 중복 설명을 삭제해 흐름을 정리한다"이다.
- ㄷ도 틀리다. 수정의 핵심은 전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중복 삭제이다. 틀린 표현은 "글의 전개 방식을 수정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겹치는 내용을 간추려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이다.

④ X
- ㄴ은 틀리다. 문장 연결을 위한 담화 표지를 추가한 흔적이 없다. 틀린 표현은 "적절한 담화 표지를 사용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중복된 설명을 삭제한다"이다.
- ㄹ은 맞다.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을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오답 포인트

삭제나 축약이 일어나면 이를 곧바로 글의 전개 방식 수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문단의 순서나 논리 구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의 반복을 덜어 낸 것인지와 중의성을 해소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 전후를 비교할 때는 먼저 새로 추가된 연결어가 있는지, 문단 배열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같은 뜻의 반복을 삭제했는지를 본다. 이어서 표현 하나가 두 가지 뜻으로 읽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인 말로 고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반복되면 중복 수정, 두 뜻으로 읽히면 중의성 해소이다.

NoteBase

문 10.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사회적 의미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 이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언어활동은 정치적 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은 사투리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강화하고 어떤 의미를 억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사전에서 사투리에 해당하는 표제어에 '방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표준어의 권위로 사투리를 배제함으로써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위계를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우리의 언어 사용은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며 그러한 사회적 의미와 연관된 사회적 관점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언어활동은 _____.

① 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②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③ 언어가 지닌 본래 의미를 강화한다

④ 언어 사용자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어의 사회적 의미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언어활동이 권력과 정치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의 사회적 의미는 말 자체에 고정된 본래 의미가 아니라 특정 상황과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이다.
언어활동의 정치성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특정 의미와 관점을 강화하고 다른 의미를 억압하여 사회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성격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모든 사회적 의미가 사회적 이익의 산물이며 모든 언어활동은 정치적 행위가 된다고 설명한다.
- 따라서 언어 사용은 중립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한다"이다.
- 지문은 언어활동이 다양한 의미를 고르게 살린다고 하지 않고, 어떤 의미는 강화하고 어떤 의미는 억압한다고 설명한다.
- 올바르게는 "언어활동은 특정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거나 억압한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언어가 지닌 본래 의미"이다.
- 지문은 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므로, 고정된 본래 의미를 강화한다는 진술은 맞지 않는다.
- 올바르게는 "언어활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의미를 재생산한다"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언어 사용자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이다.
- 지문의 초점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이익,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의 위계 같은 사회 구조이다.
- 올바르게는 "언어활동은 사회적 관점과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정당화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정치적 행위라는 표현을 정당, 선거 같은 직접 정치로 좁게 이해하면 ④처럼 개인 심리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 이 지문에서의 정치성은 언어가 사회적 위계와 관점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으므로, ②의 다양성이나 ③의 본래 의미처럼 중립적 표현은 지문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이 언어를 사회적 이익, 위계, 억압, 정당화와 연결하면 핵심은 개인 표현이 아니라 권력관계이다. 언어를 중립적 전달 수단으로 보는 선지는 지문 관점과 반대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언어의 사회적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언어활동은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NoteBase

문 11.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끼전」에서 남편을 잃은 까투리에게 까마귀, 부엉이, 기러기, 오리 등이 청혼을 하지만, 까투리는 모두를 마다하고 “허다한 홀아비가 여기저기서 통혼하나 옛말에 이르기를 _____이라 하였으니 까투리가 장끼 신랑 따라감이 마땅한 일이로다. 아모커나 살아보세.”라고 말하면서 홀아비 장끼를 선택하였다.

① 群鷄一鶴

② 轉禍爲福

③ 類類相從

④ 兔死狗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자성어의 뜻을 지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군계일학은 평범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만 두드러지게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키워드는 뛰어남이다.
전화위복은 재앙이나 불행이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됨을 이르는 말이다. 키워드는 불행의 반전이다.
유유상종 또는 類類相從은 같은 부류의 것끼리 서로 따르고 어울린다는 뜻이다. 키워드는 같은 무리이다.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쓰던 사람을 일이 끝난 뒤 가차 없이 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키워드는 이용 후 배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군계일학은 여러 보통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뛰어남을 뜻한다. 지문은 누가 가장 뛰어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까투리가 자기와 같은 종류인 장끼를 택한 이유를 묻는다. 틀린 표현은 뛰어남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부류끼리 따른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② X: 전화위복은 불행이 복으로 바뀌는 상황을 뜻한다. 지문에는 남편을 잃은 까투리가 재앙을 복으로 바꾸었다는 전개보다, 여러 청혼자 중 같은 종인 장끼를 따른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틀린 표현은 화가 복이 됨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종류는 서로 따른다는 뜻이어야 한다.
③ O: 類類相從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른다는 뜻이다. 까마귀, 부엉이, 기러기, 오리의 청혼은 모두 거절하고 홀아비 장끼를 선택한 이유가 까투리는 장끼와 같은 부류라는 데 있으므로 지문과 정확히 맞는다.
④ X: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쓰인 뒤 버려지는 관계를 뜻한다. 지문에는 공이 끝난 뒤 배척당하는 인물 관계가 없고, 같은 종끼리 짝을 이루는 상황만 있다. 틀린 표현은 이용 후 버림이다. 올바르게는 같은 무리끼리 어울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문 앞부분의 남편을 잃은 상황과 허다한 홀아비라는 말에 시선이 끌리면 불행의 반전이나 특수한 처지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빈칸 바로 뒤의 까투리가 장끼 신랑 따라감이 마땅한 일이라는 문장이 핵심이므로, 처지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같은 종류라는 기준을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에 사자성어를 넣는 문제는 서사 전체보다 빈칸 직후의 이유 문장을 먼저 본다. 이유가 같은 편, 같은 부류, 서로 어울림이면 類類相從 계열이고, 뛰어남, 불행의 반전, 이용 후 버림처럼 의미축이 다르면 바로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類類相從은 같은 종류가 따른다는 뜻이고, 군계일학은 뛰어남, 전화위복은 불행의 반전, 토사구팽은 이용 후 배척이다.

NoteBase

문 12.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ᄒᆞ랴
말ᄉᆞᆷ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 ᄒᆞ노라

(나) 새로 짜 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어 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다) 춘산(春山)에 눈 노기ᄂᆞᆫ ᄇᆞ람 건듯 불고 간 ᄃᆡ 업다
져근듯 비러다가 ᄆᆞ리 우희 불이고져
귀 밋ᄐᆡ ᄒᆡ무근 셔리를 녹여 볼가 ᄒᆞ노라

(라) 흥망이 유수ᄒᆞ니 만월대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ᄂᆞᆫ 객이 눈물계워 ᄒᆞ노라

① (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② (나): 탐관오리로 인해 곤궁해진 백성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다): 늙어 버린 모습을 통해 세월의 속절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라): 옛 도읍지에서 망국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가 네 작품의 중심 정서와 소재의 기능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거의 흥취와 자족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는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 백성이 겪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다)는 봄바람으로 백발을 녹이고 싶다는 발상을 통해 늙음의 한과 청춘 회복의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라)는 만월대 옛터를 배경으로 고려 왕조의 흥망을 회고하며 망국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며 자연을 마치 그리던 님처럼 반갑게 느끼는 작품이다.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삶의 유유자적한 흥취와 만족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O: (나)는 무명, 황두, 세금 독촉, 세곡선 같은 시어를 통해 지방 관리의 가혹한 수탈과 그로 인해 궁핍해진 백성의 처지를 보여 준다. 현실 비판과 민생의 고통이 핵심이므로 적절하다.
③ X: (다)는 봄바람을 빌려 와 머리 위의 해묵은 서리를 녹이고 싶다고 한 작품이다. 핵심은 세월의 속절없음을 관조하는 데 있지 않고 늙어 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젊음을 되찾고 싶은 소망에 있다. 틀린 표현은 '세월의 속절없음을 강조'이다. 올바르게는 '백발로 상징되는 늙음의 한과 청춘 회복의 소망을 드러낸다'이다.
④ O: (라)는 만월대가 가을 풀만 무성한 옛터가 된 모습을 통해 고려의 멸망을 돌아보는 작품이다. 옛 도읍지에서 망국의 회한을 드러낸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해묵은 서리'를 보고 단순히 세월의 무상감만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이 작품은 늙음을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봄바람으로 백발을 녹이고 싶다는 역동적 상상으로 젊음 회복의 소망까지 함께 드러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설명형 문항은 시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정서를 먼저 잡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자연 예찬인지, 현실 비판인지, 늙음의 한인지, 망국의 회고인지를 구분한 뒤 선지가 그 중심 정서를 정확히 짚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 자연 자족, (나) 수탈 비판, (다) 백발 한탄과 청춘 소망, (라) 만월대 망국 회고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재란 분쟁에 대한 판단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소송에 비해 판정의 신속성,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을 갖는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연성은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 스포츠가 생계 수단인 직업 선수에게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시간이 많이 들어, 사실상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분쟁에서 중재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정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단체 내부 기관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단체의 구성원인 선수와 단체 사이의 분쟁에서 선수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스포츠 분쟁 해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포츠 중재 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분쟁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가 필요하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 단체와 선수 간 분쟁을 해결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는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있다.

④ 스포츠 분야에서 단체와 선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이 대비한 중재, 재판, 단체 내부기관 해결 방식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재: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속성과 비용 절감이 핵심 장점이다.
재판: 법원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 직업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단체 내부기관 해결: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의 분쟁에서 정관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해결 방식이다.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중재는 당사자들만의 직접 합의가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이 개입되는 절차이므로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O
지문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단체와 선수 사이 분쟁을 단체 내부기관이 우선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선수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③ O
지문 끝부분에서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포츠 중재 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외 몇몇 국가에는 그러한 독립적 기구가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재판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이다.
지문은 재판이 시간 소모가 커서 직업 선수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체 내부기관이 우선 해결하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또한 개선 방향으로는 재판 우선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포츠 중재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올바르게는 스포츠 분야의 단체와 선수 사이 분쟁은 재판보다 신속한 중재가 유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기관 우선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독립적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분쟁 해결'이라는 말만 보고 재판을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 떠올리면 속기 쉽다. 그러나 지문은 재판의 장점이 아니라 시간 지연의 불리함을 말하고 있으며, 핵심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 우선 구조와 이를 보완할 독립적 중재 기구의 필요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내용 일치 문제는 지문이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는지를 먼저 가른다. 이 지문에서는 내부기관 우선 구조를 비판하고 독립적 중재 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므로, 재판 우선처럼 지문의 방향과 반대되는 선지는 틀린 선지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스포츠 분쟁은 재판보다 중재의 신속성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내부기관 우선 구조의 공정성 한계가 쟁점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① 법안에 맹점(盲點)이 없는지 살펴본다.
② 그는 공직의 최전선(最全線)에서 시민을 만난다.
③ 의료 사각지대(四角地帶)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④ 그간의 불문율(不問律)을 깨고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어휘의 뜻에 맞는 한자 표기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소리가 같아도 뜻이 다르면 한자 표기가 달라진다.
맹점은 사물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점이므로 盲點이다.
최전선은 가장 앞선 전선이라는 뜻이므로 最前線이다.
사각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각의 범위에서 온 말이므로 死角地帶이다.
불문율은 글로 적지 않은 규범이라는 뜻이므로 不文律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맹점은 '보지 못하는 점, 알아차리지 못하는 허점'이라는 뜻이므로 盲點이 맞다. 盲은 '눈멀다', 點은 '점'이어서 뜻과 한자가 정확히 대응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最全線'이다. 최전선은 '가장 앞선 전선'이므로 '앞 전'을 써서 最前線으로 적어야 한다. 全은 '온전할 전'이어서 뜻이 맞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四角地帶'이다. 사각지대는 '네모난 구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생기는 지대'이므로 死角地帶로 적어야 한다. 여기서 死角은 보이지 않는 죽은 각, 곧 맹점을 뜻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不問律'이다. 불문율은 '묻지 않는 법칙'이 아니라 '글로 적지 않은 규범'이므로 不文律로 적어야 한다. 文이 '글월 문'이어서 뜻에 맞다.

오답 포인트

음이 같은 한자를 소리만 따라 고르면 틀리기 쉽다. ②의 전과 全, ③의 사각을 四角으로 착각하는 경우, ④의 불문율을 不問律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는 먼저 어휘의 뜻을 우리말로 풀어 본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대입해 판단한다. 소리가 같아도 뜻풀이가 맞지 않으면 오답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맹점은 盲點, 최전선은 最前線, 사각지대는 死角地帶, 불문율은 不文律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연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제 친구는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심한 뇌진탕으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어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2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심각한 정도의 두뇌 손상을 입고 고생합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의 80%가 두뇌 손상입니다. 콘크리트 지면에서는 30 cm 이하의 높이에서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사고로 인한 두뇌 충격을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두뇌 손상의 위험을 90% 정도 줄여 줍니다. 저는 헬멧을 쓰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추장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사고 후, 헬멧을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오토바이를 탈 때면 항상 헬멧을 착용합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75%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지킨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헬멧을 쉽게 살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통계 정보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히 부각하고 있다.
② 실제 사건을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③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인한 혜택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④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설문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설득하는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제 사례 제시는 청자의 공감을 높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통계 정보 제시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해결 방법 제시는 여러 대안을 함께 제시해 청자가 비교·선택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 글은 헬멧 착용이라는 단일한 해결책을 권고하는 연설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년 2천여 명, 사망 사고 원인의 80%, 위험 90% 감소, 신체 피해 75% 감소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므로 통계 정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O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쳤던 경험을 제시하므로 실제 사건을 통해 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③ O
헬멧 착용 시 두뇌 손상 위험이 90% 정도 줄고 신체 피해를 75%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결 방안의 혜택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이다.
이 연설문은 여러 해결책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하지 않고, 헬멧 착용이라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해결 방안 제시'를 '다양한 대안 제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글에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 선택지를 준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헬멧 착용만을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설문 설명 문제에서는 자료 제시 방식과 해결 방식의 수를 구분해 판단한다. 사례와 통계가 있으면 경각심과 객관성 강화로 보고, 해결책이 하나만 반복되면 단일한 권고이지 선택형 대안 제시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사례는 공감, 통계는 객관성, 단일 권고는 선택지 제공이 아니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조신이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 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

①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종적을 감춤으로써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환기한다.

② 주인공이 꿈을 꾼다는 설정을 통해 현실에서의 소망을 환상적으로 구현한다.

③ 돌미륵, 정토사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제시되어 전설이라는 갈래의 속성이 드러난다.

④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 원하는 여성과 혼인에 이르는 능동적 애정 성취의 양상이 나타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꿈을 활용한 서사 전개, 전설 갈래의 특징, 그리고 인물 행위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몽유 구조는 현실의 소망이나 집착을 꿈속에서 환상적으로 체험하게 한 뒤 각성이나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서사 장치이다. 전설은 특정 인물, 장소, 사물과 연결된 구체적 증거물을 제시해 사실성을 덧붙이는 서사 갈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조신은 꿈에서 깬 뒤 세속을 떠나 수행하고 끝내 종적을 감춘다. 이는 꿈을 통해 체험한 삶의 고통 뒤에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결말과 이어진다.
② O: 조신은 평소 김 씨의 딸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 소망이 꿈속에서 혼인과 긴 삶의 체험으로 환상적으로 구현된다. 현실의 욕망을 꿈이라는 장치로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O: 꿈에서 깬 뒤 큰아들을 묻었던 자리를 파서 돌미륵을 발견하고, 정토사를 세웠다는 내용은 구체적 유물과 장소를 제시해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인다. 이는 전설 갈래의 속성을 드러내는 설명으로 적절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와 '능동적 애정 성취'이다. 작품에서는 김 씨의 딸이 먼저 다가와 오래전부터 조신을 사모했다고 고백한다. 올바르게는 '김 씨의 딸의 고백으로 조신의 소망이 꿈속에서 실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혼인이라는 결과만 보고 조신이 능동적으로 사랑을 성취했다고 오독하기 쉽다. 그러나 이 대목의 핵심은 애정 성취의 주체가 조신이 아니라 꿈속에서 먼저 고백하는 김 씨의 딸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사 설명 문제에서는 사건의 결과만 보지 않고 그것을 일으킨 장치와 행위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꿈, 증거물, 결말의 태도 변화가 보이면 각각 몽유 구조, 전설성, 주제 의식을 연결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신전은 꿈으로 욕망을 체험하고 깨어서 집착을 버리는 이야기이며, 돌미륵과 정토사는 전설적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 의존도를 높인다.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① 최첨단 기술은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된다.

② 최첨단 기술 시스템은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③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해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④ 적정 기술은 여러 자원의 집중과 다양한 주체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의 대비 관계를 바탕으로 각 기술의 성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에 기대는 기술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 관리가 필요해 취약해질 수 있다. 키워드는 중앙 집중, 기술 집약, 높은 의존도이다.
적정 기술은 지역의 노동력과 재생 에너지처럼 그곳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키워드는 지역 조건, 지속 가능성, 분산적 활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최첨단 기술은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여'이다.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해 노동력이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정 기술의 성격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② O: 지문에서 최첨단 기술 시스템은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유지와 관리에 부담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이므로 지문 내용에 부합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해'이다.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고, 적정 기술은 그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여러 자원의 집중'이다. 적정 기술은 자원을 집중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이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중앙 집중식 기술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지역의 개별 조건', ③의 '위기 상황에 취약해', ④의 '자원의 집중'은 모두 적정 기술과 최첨단 기술의 속성을 서로 뒤바꾼 표현이다. 대비형 지문에서 어느 속성이 어느 개념에 붙는지를 바꾸어 읽으면 오답에 걸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비형 지문에서는 두 개념을 가르는 축을 먼저 잡는다. 이 지문에서는 '중앙 집중·기술 집약·의존도 상승'은 최첨단 기술, '지역 조건 활용·지속 가능성·자립성'은 적정 기술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곧바로 된다.

암기 포인트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 적정 기술은 지역 조건 활용과 자립성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작품이 창작되어 예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노 아트'이다. 나노 아트는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으로, 원자나 분자 크기의 물질이 가지는 나노 공간의 풍경이나 조형물이 예술가의 미학적인 창작 과정을 거쳐,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확대된 일련의 예술 작품을 일컫는다.

나노 아트의 이미지는 나노 기술을 통해 시각화된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세 단위이기 때문에 나노 기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나노 기술을 통해 나노 규모의 물질은 평면의 이미지가 아닌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고, 이는 다시 2차원 형상으로 전환되어 디지털 소묘나 회화 혹은 사진 등의 이미지들로 최종 제작된다.

일반적인 회화나 사진 등이 모두 빛이 필요한 예술인 데 반해, 나노 아트는 빛이 아닌 전자 빔이나 이온 빔 등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나노 아트의 창작 공간은 전자 현미경이나 원자 현미경 속의 미세 공간이다. 광학 현미경이 빛을 이용해 물체를 관찰하는 것인 반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 빔을 이용해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원자 현미경은 탐침을 이용해 대상의 표면을 스캔하여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다.

①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빛을 이용하는 다른 예술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나노 아트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노 기술을 통해 나노 규모의 물질이 이미지로 제작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문이 나노 아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정의인지, 대조인지, 예시인지와 함께 나노 아트의 제작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개념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다. 대조는 두 대상을 대비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예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 지문에는 특정 나노 아트 작품이나 개별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에서 "나노 아트는 … 일련의 예술 작품을 일컫는다"라고 하여 나노 아트가 무엇인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된다.
② O. 마지막 문단에서 일반적인 회화나 사진은 빛이 필요한 예술이라고 하고, 나노 아트는 전자 빔이나 이온 빔 등을 이용한다고 대비하므로 대조의 방법이 사용된다.
③ X. 틀린 표현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이다. 지문은 나노 아트의 개념, 시각화 방식, 창작 공간을 설명할 뿐, 특정 작품이나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된 나노 아트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이다.
④ O. 둘째 문단에서 나노 규모의 물질이 나노 기술을 통해 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드러난 뒤 다시 2차원 형상으로 전환되어 디지털 소묘, 회화, 사진 등의 이미지로 최종 제작된다고 하므로 제작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정의와 예시를 혼동하면 ③에 끌리기 쉽다. 지문에 나노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지만, 어떤 작품이 그 예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방식 문제는 먼저 지문에 대상의 개념 규정이 있는지, 다른 대상과의 대비가 있는지, 실제 사례 제시가 있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사례의 이름이나 구체적 대상이 없으면 예시로 단정할 수 없다.

암기 포인트

정의는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는 방식이고, 대조는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예시는 구체적 사례를 드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은?

논제: 채용 면접 시 인공지능 면접관을 도입해야 한다.
주장: 인공지능 면접은 기업의 채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모니터 속 인공지능 면접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효율성과 속도에 만족하고 응시자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인공지능은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맥박, 눈동자, 표정 등 수십 가지 신호를 분석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평가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반론: _____
<조건>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주장'에서 언급한 효과의 부작용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

① 인공지능 면접은 면접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② 인공지능 면접의 평가 오류는 시스템의 보완으로 개선하더라도 면접의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③ 인공지능 면접이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출신지와 연령 등 응시자의 신상 기록이 인공지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에 반대합니다.

④ 인공지능 면접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면접관이 응시자의 답변과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 안에서 제시된 효과가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연결해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논제는 채용 면접 시 인공지능 면접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장은 인공지능 면접의 효율성, 속도, 공정성 기대, 높은 평가 정확도를 장점으로 제시한다.
- 판단에 중요한 조건은 장점을 일부 인정한 뒤 그 장점과 직접 연결되는 부작용을 들어 반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 부분 인정형 반론은 상대 주장의 일부 효용은 받아들이되, 그 효용이 실제 운용에서 낳는 한계나 역효과를 제시해 결론은 반대로 두는 방식이다.
- 적용 요건은 인정한 효과와 제기한 부작용 사이에 직접적인 내용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효율성이나 정확도 같은 주장 속 효과를 먼저 받아들인 뒤, 그 효과가 실제 평가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유를 붙였는지를 본다. 효과와 무관한 개발 비용, 사후 처리 문제, 바깥 정보 노출만 말하면 조건에서 벗어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면접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였지만, 이어진 '시스템 개발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내용은 주장 속 효과의 부작용이 아니라 도입 준비 비용을 말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한다고 말하기 어렵다'이고, 올바르게는 '진행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평가 과정이 기계적으로 흘러 정확한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처럼 효과와 연결된 부작용을 제시한 문장이어야 한다.
② X: '평가 오류는 시스템의 보완으로 개선하더라도'라는 표현은 주장 속 장점을 분명히 인정한 문장이 아니다. 또 '면접의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은 효율성·공정성·정확도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사후 구제의 어려움을 따로 말한 것이다. 틀린 표현은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고, 올바르게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표정·맥박 같은 신호 해석이 획일적이면 오히려 불공정한 판단이 생길 수 있다'처럼 효과와 부작용을 직접 연결한 문장이어야 한다.
③ X: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인정은 하였지만, '출신지와 연령 등 응시자의 신상 기록이 인공지능에 노출된다'는 말은 주장에 제시된 효과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시문은 맥박, 눈동자, 표정 등 반응 신호 분석을 말할 뿐 출신지·연령 노출 문제를 근거로 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출신지와 연령 등 응시자의 신상 기록이 인공지능에 노출되기 때문에'이고, 올바르게는 '정확도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비언어적 신호를 잘못 읽으면 평가 오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처럼 제시된 효과 내부의 한계를 짚은 문장이어야 한다.
④ O: '인공지능 면접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로 주장의 일부를 먼저 인정하였다. 이어서 '답변과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을 들어, 제시문이 강점으로 내세운 신호 분석과 평가 정확도가 오히려 잘못 작동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며 반대 결론을 내렸다. 조건의 '부분 인정, 효과의 부작용 제기, 반대 입장'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속도를 인정해 겉보기에는 조건에 맞아 보이지만 개발 시간은 제시된 효과의 부작용이 아니라 도입 비용 문제이다. ③은 개인정보 우려가 그럴듯하지만 제시문이 내세운 효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바깥 논거라는 점에서 조건을 벗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형 반론 문제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표시하고, 다음으로 그 인정 대상과 바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찬성인지 반대인지까지 맞아야 정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조건형 반론은 일부 수용 후 같은 논거의 역효과를 붙여 결론을 뒤집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20. (가)의 관점에서 (나)가 지적한 문제점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는 논증을 논쟁하는 사람들의 호전적인 태도,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청중을 강압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논증은 '첫째, 해결 방식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풀려고 한다. 둘째, 각각의 해법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질문, 반대, 대안에 대해 대답하고 대응한다.'로 정의한다. 논증은 단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논증은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서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논증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나) 우리가 토론을 볼 때,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는 것 같을 때가 많다. 토론자들은 상대방 입을 다물게 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같아 보인다. 토론의 풍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 때문에 한층 더 살벌해진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주장을 '밀어붙이고' '반격'에 맞서 '방어'한다. 영어의 '논증(argument)'이 '논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논쟁(論爭)은 서로 '견해를 다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쓰는 말 자체로 논증은 싸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① 문제 해결 시에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주장의 관철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반격한다는 자세보다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따져 보는 행동이 바람직하다.
④ 차분한 어조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 논리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가 보는 논증의 본질이 상대 제압이 아니라 공동 탐구와 이유 교환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나)가 지적한 싸움의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논증: 해결 방식에 대한 불일치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풀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고 질문, 반대, 대안에 응답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공동 탐구, 이유 교환, 상호 이해이다.
싸움의 이미지: 상대를 공격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대결의 틀로 논의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제압, 공격, 방어이다.
(가)는 논증을 싸움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깊이 탐구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문제 해결 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태도는 (가)의 관점과 맞는다. (가)는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며 문제를 깊이 탐구한다고 보므로, 한쪽 주장만 밀어붙이는 것보다 여러 관점을 검토하는 평가가 적절하다.

② O
주장의 관철을 상대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평가는 (가)의 취지와 맞는다. (가)는 논증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고, 논증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이해와 설명을 중시하는 평가가 적절하다.

③ O
반격 자세보다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따져 보는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가)는 논증을 질문, 반대, 대안에 답하면서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므로, 싸움식 반격보다 근거 검토가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차분한 어조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 논리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비교이다. (가)와 (나)는 논증의 목적과 태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싸움의 이미지 문제를 말할 뿐, 말의 속도나 어조의 우열을 직접 논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대를 제압하는 말하기보다 이유와 근거를 주고받으며 함께 탐구하는 논증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나)에 공격, 반격, 방어 같은 표현이 나오므로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가)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말의 빠르기나 조용한 어조가 아니라, 논증을 상대 제압의 싸움으로 보는 틀 자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공동 탐구, 이유 교환, 상호 이해처럼 논증의 기능을 살리면 적절한 평가이다. 선지가 말투, 속도, 분위기처럼 제시문에 없는 주변 요소를 끌어오면 부적절한 평가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논증은 상대 제압이 아니라 공동 탐구와 이유 교환이다.

NoteBase